

2021. 12. 14.

제 목 : 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

위의 결의안을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
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임 : 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 1부. 끝.

발 의 자 김 종 길



의원 외 1 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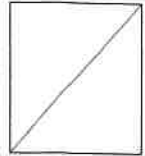
(찬 성 자 서 명 별 첨)

찬 성 자 서 명

(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)

의원명	날인(서명)	비고
정 덕 영		
황 영 회		
이 회 창		
김 종 길	김 종길	
홍 성 표		
안 순 덕		
임 재 근	임재근	
한 미 령		

안건번호	제2021- 호
의 결	
년 월 일	



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

제 출 자	양주시의회 의원 김종길
제출년월일	2021. 12.

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

안건 번호	제2021-
----------	--------

제안일자 : 2021. 12.

제 안 자 : 양주시의회 김종길 의원 외

1. 제안이유

- 양주로컬푸드 사업은 보조금 사업으로서 양주시가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관리감독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책임을 갖는 사업임
- 그러나 양주시는 법령과 기준, 지침을 어기고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유지운영에 대한 평가를 형식적으로 하였으며 현지조사를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로컬푸드 납품농가의 피해를 초래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.
- 따라서 양주시는 중대한 보조금 사업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양주시를 믿고 사업에 참여한 농가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함

2. 주요내용

- 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여 로컬푸드 납품농가의 피해조사를 실시함
-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을 실시함

3. 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문(안)

- 별지 덧붙임

4. 송부처 : 양주시장

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문(안)

- 양주시 로컬푸드 사업은 국도비 및 시보조금 약 10억원이 투입된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업체 선정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과 의무가 양주시와 양주시장에게 있는 사업이다.
- 그러나, 양주시는 지방재정법, 양주시보조금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모에 의하지 않고 선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운영에 대한 심의, 현지조사 누락,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수많은 심각한 문제점이 밝혀졌다.
- 이러한 문제점은 양주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및 양주시청의 자체감사 결과,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청구 검토결과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다.
- 이로 말미암아 양주시의 보조금 사업으로 시의 성실한 관리감독의 선의만을 믿고 양주시 로컬푸드 사업에 참여하여 납품한 123농가가 1억5천 2백만원의 피해를, 출자자 133명이 1억 9천 2백만원의 출자금 손실을, 그 외에도 로컬푸드에 입점하여 영업한 입점자들의 피해 등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.
- 납품농가들의 피해는 단순한 업체와 농가들간의 사(私)적인 거래가 아닌 양주시의 보조금사업 관리책임의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양주시가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.
- 따라서 양주시는 빠른 시일안에 농업기술센터를 주무로 하는 그 피해진상을 파악하고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여, 피해보상 예산을 확보하여 피해보상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.

2021. 12.